

##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김 강 녕\*

### 목 차

- |                           |                  |
|---------------------------|------------------|
| I. 서론                     | IV.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
| II.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미래전의 양상 | V. 결론            |
| III. 한국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의 기초   |                  |

###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미래전의 양상, 한국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의 기초,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동북아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교류와 다자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양안문제, 역사문제, 영토문제, 해양경계선 확정문제와 같은 갈등요인과 함께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은 여전히 역내안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제재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총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수적 규모에서 세계 4위 재래식 전력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개편하고 실용적 선진국방운영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군은 가용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위협에 우선 대비하면서 전면전과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선진군사역량을 건설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능력과 실시간 감시능력을 구비하고,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이 가능한 C4I체계를 구축하며, 기동·타격전력체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동북아 안보정세, 한국의 국방정책, 국방개혁, 미래전, 북한의 군사위협

\* 조화정치연구원장, 정치학박사

## I. 서 론

인류의 정치사는 신뢰와 증오, 협동과 투쟁, 평화와 전쟁의 변증법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와 전쟁은 국제정치학의 알파(alpha)요 오메가(omega)다. 미국의 역사학자요 철학자인 윌 듀란트(Will Durant)는 그가 쓴 『역사의 교훈』(*The Lessons of History*)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sup>1)</sup> 빅토르 셰르뷔에(Victor Cherbuliez)에 의하면 기원전 1500년으로부터 기원후 1860년에 이르는 사이에 8,000건에 달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으며, 그것들은 각기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여 주는 것같이 보였으나, 모두가 평균 3년 이상은 더 계속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sup>2)</sup>

미국의 사회학자 소로킨(Pitilim A. Sorokin, 1889-1968)은 『세계전쟁연구』에서 러시아는 1000년의 역사 중 25년만 완전한 평화를 유지했으며, 영국 역시 100년을 기준으로 56년간 전쟁을 치렀다고 분석했다.<sup>3)</sup> 또한 ‘전후’ 시기라는 말이 아이러니(irony)일 정도로 1945-1990년의 전체 2,340주 중에서 지구상에 전쟁이 전혀 없었던 기간은 도합 3주에 불과했다고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자신이 쓴 『전쟁과 반전쟁』(*War and Anti-War*)에서 기술한 바 있다.<sup>4)</sup>

인간들이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가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노만 카즌스(Norman Carsons)는 기원전 3600년부터 기원 후 195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약 14,500회의 전쟁이 발생했다고 기록하였다. 이 기간 중 지구 어느 곳에도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92년에 불과하며 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약 35억의 인류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sup>5)</sup> 우리나라는 기원전 57년부터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930여회 외침에 의한 수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국제평화를 확보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국제정치·군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것은 전 인류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에 있어서 평화는 일체·불가분의 세계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볼 때, 종전과 같은 ‘또 하나의 세계대전’은 곧 인류의 파

1) 박헌욱, “이라크 전쟁 양상 분석,” 21세기군사연구소, 『군사세계』, 2001년 5월호, p.35.

2) Erich Fromm, *The Sane Society*(New York: Rinehart & Company, Inc., 1955), p.4; H.B. Stevens, *The Recovery of Culture*(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9), p.221 참조.

3) 국방부 정훈공보관실, “국가안보와 군의 역할,” 『국방일보』, 2002년 3월 29일자.

4) 이규형 감역,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저, 『전쟁과 반전쟁』(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p.28.

5) 이춘근, “세계 전쟁의 유형과 그 특징,” 1994.6

[http://blog.naver.com/ghkwlsj?Redirect=Log&logNo=90087\\_425482](http://blog.naver.com/ghkwlsj?Redirect=Log&logNo=90087_425482)(검색일: 2010.11.22).

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냉전종식에 도 불구하고 테러·인종·종교·민족·자원·영토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아·태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동북아 안보환경 역시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경제적 차원의 협력과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감정 및 영토분쟁 등과 같은 정치·군사적 차원의 갈등과 분쟁요인도 상존하는 등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협력과 갈등의 혼재 속에서 실리차원의 안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래의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군사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지식·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안보의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첨단무기 확보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안보의 패러다임은 ① 군사중심에서 경제·기술·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 ② 영토 개념을 벗어나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전장영역의 확장, ③ 양적 대군주의(量的 大軍主義)에서 질적 정예주의(質的 精銳主義)로 군사력 건설 개념 전환 등 패러다임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sup>6)</sup>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그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하여 주변국제환경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기원전 1세기 이래로 한반도는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고, 한때는 중일세력의 각축장이 되다가 일제에 국권을 상실하여 식민지가 되기도 했다. 1945년 광복의 기쁨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미국·소련·중국간 직간접적 대결의 일면이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1953년 휴전을 받아들여도록 압력을 가한 것도 다름 아닌 주변강대국들이었다. 이처럼 주변강대국들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주된 대결장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아왔다.<sup>7)</sup> 탈냉전의 예외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경우, 경제난·체제불안·외교난 등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북한이 남북대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남전략이 달라지지 않고 또한 핵·미사일 등 위협적인 대량살상무기를 증강하여 국제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간에는 여전히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주변국의 현재적 및 잠재적 위협과 군사혁신, 그리고 더 나아가 테러와 마약, 사이버테러, 해적 등과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는 3중적 안보과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평화통일을 추진해 나가며,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호 또는 의지의 표현에만 그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힘이

6) [http://www.mnd.go.kr/sub\\_menu/W-book/1-1-1.htm](http://www.mnd.go.kr/sub_menu/W-book/1-1-1.htm)(검색일: 2002.10.18).

7) 박준홍,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서울: 박영사, 1978), p.15.

절실히 요구됨은 지당한 귀결이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평화와 안보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군사력·경제력 등과 같은 힘(power)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sup>8)</sup>

국가를 방위한다는 것은 먼저 외부의 무력침략이나 간섭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 그리고 국토(육지·영해·영공)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주권은 대외적 독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 제5조 1항에서는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은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군은 병력 위주의 양적 군사력 구조를 정보기술집약형 첨단구조로 전환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하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선진병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예강군'을 육성함은 물론, 21세기 선진조국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육성'은 우리의 국방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이자 국방비전이기도 하다.

이 글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미래전의 양상, 한국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의 기초,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 II.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 및 미래전 양상

오늘날 세계 안보환경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테러, 해적, 자연 재해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영토·자원·종교·인종문제 등 안보 위협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괄적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호 전략적인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 교류와 다자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양안문제, 역사문제, 영토 분쟁, 해양경계선 획정문제와 같은 갈등 요인들과 함께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은 여전히 역내 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9)</sup>

중층적 안보구조의 형태를 띄우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는 미국주도의 군사적 단극, 주변강국들의 대립과 갈등이 예기되는 정치·외교적 다극,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협력적 다극체제를 이루고 있다.<sup>10)</sup> 즉, 경제적으로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증대하려고 노력하지만 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대결과 갈등의 구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협력과

8) 김강녕, 『동북아 평화안보론』 (부산: 신지서원, 2003.8), pp.3-5.

9)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12.31, pp.8-12.

10) Byung-ok Kil, *Security Policy Dynamics*(London: Ashgate, 2001), Ch.1.

경쟁의 이중적 양면성”을 띄고 있다. 미국의 패권질서 재구축과 중국의 중화이념 부상이라는 경쟁관계가 중심축이 되고<sup>11)</sup>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의 향수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는 러시아 등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갈등구조 및 안보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은 동북아 주변국들이 미래전에 대비한 질적 향상을 위해 소위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포괄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군사혁신을 통한 방위력 증강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국방개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방개혁 프로그램에는 표면적으로 군전력 향상의 목표와 단계가 제시되었지만, 실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지나치게 북한위협에 치중한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약되어 있는 문제점도 많다.<sup>12)</sup> 따라서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에 기초한 추세판단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상황의 가변적 변화에 대한 신축적인 판단과 평가작업을 바탕으로 전향적이며 실질적인 국방개혁의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국제제재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총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수적 규모에서 세계 4위 재래식 전력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sup>13)</sup> 하지만 장기적인 견지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정착을 거쳐 통일로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이 점차 사라져 가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동북아 지역내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요인으로는 강대국들간의 국익경쟁 및 영토분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초국가적 테러위협과 생화학 무기의 살포 등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으로는 해양통제권 확보를 포함한 해양도서 분쟁, 주변국과의 비대칭전 그리고 저강도 분쟁형태로서 나타나는 뉴테러리즘의 확산 등이다.<sup>14)</sup>

동북아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교류와 다자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양안문제, 역사문제, 영토문제, 해양경계선 확정문제와 같은 갈등요인과 함께 이를 들

11) 오수열, 『미중시대와 한반도』 (부산: 신지서원, 2002) 참조.

12) 언론에 보도된 남북한 군사력 비교(육군은 북한육군의 80%, 해군은 북한해군의 90%, 공군은 북한공군의 103%)는 1990년대초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한 단순전력지수방식에 일부상황변수를 첨가한 평가수준에 그쳤다는 문제제기와 단순히 북한의 위협만 고려한 상태에서는 미래 종합전쟁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비평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범위를 뛰어넘는 정보전력 확보, 지휘통제자동화체계 및 정밀유도무기체계 구입 등을 통한 협력적 자주국방의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2004년 8월 30일자, 1면.

13)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20).

14) 서현석, “해양전략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해양전략연구소 편, 『동북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우리군의 발전방향』, 2001, pp.137-182.

〈동북아연구〉

러싼 주변국들의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은 여전히 역내안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5)</sup> 다시 말해서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군사적으로 강국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전통적인 갈등·대립구도와 협력구도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구도에서 역내 강대국들은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동북아 각국은 역내에서의 력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표 2-1〉 참조).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인구	3억 382만	1억 2,729만	13억 3,004만	1억 4,100만	4,923만	2,347만
면적	966만 km <sup>2</sup>	37만 km <sup>2</sup>	959만 km <sup>2</sup>	1,707만 km <sup>2</sup>	10만 km <sup>2</sup>	12만 km <sup>2</sup>
GDP	13조 8천억 달러	5조 3천억 달러	4조 8천억 달러	1조 3천억 달러	8,820억 달러	220억 달러
1인당GDP	47,699 달러	40,759 달러	3,178 달러	17,455 달러	14,419 달러	952 달러
병력	146만	23만	228.5만	103만 명	65.5만 명	119만 명
주요 무기	항공모함 11 잠수함 71 전투(폭)기 3,700	잠수함 16 전투기 360	잠수함 62 전투(폭)기 2,604	항공모함 1 잠수함 67 전투(폭)기 1,973	잠수함 10 전투임무기 490	잠수함(정) 70 전투임무기 840
국방비	6,903억 달러	456억 달러	780억 달러	411억 달러	245억 달러	23억달러
전력증강	MD체계 구축, 신형 전투기/함정 개발 배치	MD체계 구축, 신형 잠수함, 헬기담재호위함, 공중급유기도입	신형전략미사일, 전략해잠수함, 우주전력 강화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5세대 전투기	이지스함	대량살상무기 , 다연장·방사 포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9(London: IISS, 2009),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 2009.1.19 등을 참조하여 작성. 국방비는 2007년 국방예산 기준, 전투(폭)기는 공군의 전략폭격기·폭격기·전투기를 합산하였음.

특히 해양도서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일본간의 남사군도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러시아와 일본과의 북방도서문제 등 주변국 모두가 크든 작든 영토분쟁에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분쟁은 서로 암묵적으로 연기 또는 잠복시켜 놓았을 뿐 언제라도 침예한 이슈로 부상될 수 있다.<sup>16)</sup> 이것은 단순히 문제가 된 도서나 해양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양태로서의 분쟁가능성보다는 서로간 해양자원 및 자국영토에 대한 영유권경쟁으로서의 억지

15)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12.31, p.12.

16) 아태지역의 해양안보 환경변화와 협력과제 및 해양전략의 개념에 대해서는 박호섭, “해양전략의 현대적 개념과 과제,” 해군대학 해양전략 심포지엄 논문집(2004), pp.1-52 및 백진현,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 협력의 과제와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8집 3호(1999), pp.55-81 참조.

력 확보를 강조하는 정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장차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미래의 군사적 위협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군 개혁 및 구조개편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sup>17)</sup>

결국 동북아에서 주요 안보위협요인은 강대국간의 국익경쟁을 포함하여 저강도전쟁의 가능성 증대, 해양도서분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초국가적 테러위협, 국제범죄 및 마약 밀거래, 대량난민의 유입, 자연환경파손문제 등이다. 따라서 미래의 안보상황은 '불확실성'과 '불특정성'으로 대변할 수 있고, 전쟁개념은 다차원적인 하이테크 정보전쟁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이다. 결국 전쟁의 개념은 과거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외교의 수단에서 불특정한 초국가집단이나 테러집단의 갈등과 경쟁으로 발생하는 저강도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전개된 전쟁수행양상을 살펴보면 미래전 양상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sup>18)</sup> 첫째,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 지상 기동무기 중심에서 해상과 공중 및 우주공간을 이용한 첨단무기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상대방의 정보체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전략적 마비를 달성하여 아군 작전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정보전으로 전환되었다. 셋째, 인명살상 및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성이 향상된 무기체계와 전장특성에 부합된 공격전술을 적용하였다. 넷째, 해상 및 항공무기체계의 위력과 적 방공망제압 임무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다섯째, 미국 등 다국적군의 첨단 전투력과 이라크, 유고연방 및 아프간의 재래식 전력간의 비대칭전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전쟁수행양상은 정치 및 전략적인 측면, 작전 및 전술적인 측면, 그리고 무기체계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치 및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명분하에 다국적군의 역할이 보편화되고 정치, 경제 및 정보력 등 전방위 수단의 활용이 증시되었다. 또한 ① 전쟁이전 적 방공망의 무력화로 현대전의 최우선적 전략목표인 제공권을 조기 장악하는 것이 승리의 여건을 제공한다는 점; ② 군사혁신, 효과기반작전, 정밀무기체계를 적용한 현대전의 수행은 고격렬단기속결전, 저비용전, 탈대량살상전을 추구한다는 점; ③ 첨단화, 경량화 및 기동화된 전력으로 합동성을 지향한 새로운 전쟁방식의 전개와 합동전의 핵심전력은 첨단항공력이라는 점; ④ 적 군사력의 파괴보다는 기능마비를 목표로 수행된 효과기반 작전에 의한 해군력 및 항공력 운용은 전쟁 승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 등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19)</sup>

17) 백종천, "한국의 국방개혁: 주변 4강과의 비교시각에서," 이대우 편, 『한국 대외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향』 (서울: 세종연구소, 2000), pp.71-118.

18) 전쟁수행방식의 측면에서 내용요약은 강진석,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서울: 평단, 2005), pp.510-547 참조.

19) 류재갑, "미래전쟁의 양상변화와 해병대의 새로운 역할," 『전략논단』, 통권 제6호(2007), pp.14-33 및

둘째, 작전 및 전술적인 측면에서 다국적군 작전이 시행됨에 따라 연합작전을 위한 임무수행절차, 지휘관계 및 장비의 상호운용성, 공중타격전력, 함정발사 원거리 순항미사일, 항모전력, 특수전 전력, 정보전력 등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합동작전 능력 및 통신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작전 및 전술적인 측면은 ① 전투 의사결정 순환체계의 혁신적 시간단축과 적 인식체계의 발달로 긴급표적 타격능력이 대폭신장된 점; ② 소규모 지상군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실시한 신속기동전략은 군수지원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첨단 해군력 및 항공력의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는 점; ③ 지상군의 신속기동은 군사혁신, 제공권 장악, 해상력 및 항공력 지원, 우회 기동전술에 의해 가능하였다는 점; ④ 연합군의 심리전은 적 지도부를 국민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는 점; ⑤ 민간기술 도입을 통한 군수관리 체계의 개선으로 경제적 군수관리 및 물자수송 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sup>20)</sup>

셋째, 무기체계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물리적 타격위주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정밀성 및 기동성을 겸비한 정보 네트워크 체계의 활용으로 질적우위의 효과중심(effects-based) 및 네트워크중심(network-centric) 전략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가장 괄목할만한 특징은 ① 역사상 정밀유도무기가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어 장차전의 양상을 예측케 한 점; ② GPS를 포함한 해상 및 항공우주무기체계는 모든 작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밀공격능력이 요구되는 미래전에는 더욱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 ③ 장시간 정찰 가능한 무인기, 정밀고성능 대형폭탄 등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산악지형과 동굴 등을 이용한 게릴라전 수행의 한계성을 노출하였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sup>21)</sup>

이러한 정치 및 전략적인 측면, 작전 및 전술적인 측면, 그리고 무기체계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에서 시사하는 바는 국가안보의 미래가 군사과학기술능력, 정보지식능력, 해양력 및 항공우주력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장환경의 변화는 군사력의 질적우위에 의한 정보과학전과 비대칭전력의 역할 확대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앞서 분석된 전쟁양상의 변화는 전력체계의 발전추세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면으로 보면 전장관리 체계의 통합 및 자동화, 기존 무기체계 및 인식체계의 정밀지능화, 무인 자동화된 원격조종 시스템의 활용확대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종합하면 전쟁승리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들은 다국적군 및 육·해·공군의 합동성/연합성(jointness) 그리고 전쟁지휘통제체계의 효율성 증대, 전장인식체계의 활용, 첨단기술에 의한 정밀타격체계의 발전 등이고 이러한 능력들의 결합으로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복합체계가 미래전의 승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복합체계는 먼저 다국적군 및 육·해·공군의 신뢰와 믿음으

공군전투발전단, 「이라크 전쟁」(계룡: 공군본부, 2003), pp.72-76.  
20) 류재갑(2007), pp.14-33 및 공군전투발전단(2003), pp.72-76.  
21) 류재갑(2007), pp.14-33 및 공군전투발전단(2003), pp.72-76.

로 연합전장운영개념을 현실화함으로써 전력의 극대화 실현 및 전쟁지휘부의 역할 조합으로 새로운 전력창출이 가능하였다. 전쟁지휘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높은 수준의 팀워크 유지로 전쟁지도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 여기서 합동전장지도체계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각군별 통합성을 활용한 신 전쟁수행개념으로 네트워크는 개선된 센서, 네트워크링된 정보, 신속한 의사결정, 모든 전장공간의 최대활용을 위해 모든 능력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장운영체계로서 최첨단 지휘명령체계는 육·해·공, 일선 첨단부대 및 전장의 헬기, 전차, 지휘소 등에서 서로 인터넷처럼 연결하여 각자의 위치를 육안이 아닌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한 운영체계를 일컫는다.<sup>22)</sup>

최근의 전쟁양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전장인식체계(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를 이용한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개념을 적용으로 동시성, 신속성 및 통합성 실현으로 연합성 개념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졌다. 감시·정찰 전력으로 프리데터(predator), 글로벌 호크(global hawk), 새도(RQ-7A)를 사용하였다.<sup>23)</sup> 프리데터(predator)는 중거리 또는 중고고도용 무인 정찰기(임무고도 8km, 15시간 체공)로서 전자광학 및 적외선 레이더로 사진촬영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였고, 제이스타(JSTARS)라는 유인정찰기와 병행운용하면서 헬파이어 공대지 유도탄을 탑재, 원격조종 목표물을 타격하였다. 글로벌 호크(global hawk)는 장거리 또는 고고도용 무인정찰기(임무고도 17-22km, 38시간 체공)로서 전자광학 및 적외선 레이더로 사진촬영하며 해상도는 30cm로 개인화기의 식별도 가능하게 하였다. 새도(RQ-7A)는 실시간 전투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선지휘관들에게 적의 생화학무기의 사용여부 탐지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첨단기술에 의한 정밀타격체계의 발전으로 명중률의 향상 및 무기체계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밀타격전력은 토마호크 미사일(BGM-109 함대지 미사일 및 AGM-86 공대지 미사일), 합동정밀직격폭탄(JDAM), 지하병커 및 동굴파괴탄(GBU-28/37, Bunker Buster), 원거리 유도미사일(JSTOW), 전자기펄스탄(EMP탄) 등이 사용되었다.<sup>24)</sup> BGM-109

22) 한용섭 외, “이라크 전쟁의 평가를 통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책,”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정책연구과제 자료집』, 2003, pp.1-18.

23) 이라크전에 투입됐던 첨단무기인 중고도 무인정찰기 프리데터 및 해병전폭기 F/A 18 호넷은 2005년, 고고도 글로벌 호크는 2006년 말에 주한미군 3개년 현대화 계획에 의거 주한미군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용섭 외(2003); 『중앙일보』, 2004년 9월 15일자, 1면.

24) 합동정밀직격폭탄(JDAM)은 GPS 및 관성유도시스템이 내장된 단거리 및 정밀 공대지 공격용 유도폭탄으로 산악 은거지 및 지원시설 타격하고, 사거리는 16-24km, 정확도는 3m 이내이다. 투발수단은 B-2폭격기, F-14, 15, 16, 18 등이다. 지하병커 및 동굴파괴탄(GBU-28/37, Bunker Buster)은 지하병커 공격을 위한 정밀표적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GPS/레이저로 유도하여 동굴 안에서 폭발한다. 사거리는 24km, 콘크리트는 6m 그리고 일반지하는 30m 관통한다. 투발수단은 F-15, B-2폭격기 등이다. 원거리 유도미사일(JSOW)은 목표물 접근에는 GPS유도, 종말단계에는 적외선 영상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자탄 공격가능한 유도무기(스마트탄)이다. 투발수단은 B-2폭격기이다. 전자기펄스탄(EMP탄)은 폭발시 순간적으로 20억W 이상의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사하여 환풍구, 파이프, 안테

〈동북아연구〉

함대지 미사일은 컴퓨터에 입력된 지도에 따라 비행하거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유도비행 외에 자체 카메라까지 장착한 기종으로 1,600km 떨어진 목표물을 10m 이내에 오차로 타격한다. AGM-86 공대지 미사일은 GPS와 자체 입력된 컴퓨터 지도에 따라 비행하고 2,000-2,500km 떨어진 목표물을 반경 10m 이내로 타격한다.

이러한 시스템복합체계의 활용은 결국 네트워크중심의 전쟁체계 및 효과중심작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무기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향상시킨 네트워크중심의 전쟁체계의 활용으로 소규모 지상군 병력의 투입으로 단기간에 전쟁의 우위를 달성하였고, 전투부대와 보급부대가 함께 전진하면서 속전속결에 기여하지 않은 표적은 우회하며, 중요 표적은 분산된 특수부대, 전투부대 및 정밀무기가 일거에 덮치는 '벌떼 전술'(swarm tactics)을 운용하였다.<sup>25)</sup> 특히 효과중심작전을 실행하여 이라크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한 선별적 표적 파괴 및 심리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작전 개념을 적용하였고, 민간인 피해와 사상자를 줄이는 반면 근본적으로 해군력 및 공군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중심의 폭격을 실행하였다.

첨단무기체계 및 시스템복합체계의 조화로운 결합, 특수전 전력의 효과 입증, 군수지원의 대혁신 등 또한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었다. 전쟁 초기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했던 공세 및 방어제공임무가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전력이 지상군 지원에 활용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시가지 CAS(근접항공지원)작전에 투입되어 단시간 내에 적 중심부의 함락이 가능하였다. 또한 주변 해상통제, 장거리 해상정밀타격 및 수송임무 완수로 해군의 통합전력을 극대화하였고 적의 해상교통로를 완전통제하거나 압박을 강화하였다.<sup>26)</sup>

더불어 군수지원체계를 대혁신하여 군수물자의 물류이동시 창고보관 과정을 생략하고 수송선에 화물을 실을 때 '최대가 아닌 최적'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시, 적소, 적량의 군수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충분한 증원전력 전개 후 공격하던 과거의 전쟁수행방법을 탈피하여 신속한 공수·해상수송능력을 활용함으로써 병력/무기가 도착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병력의 규모보다 기동성과 무기의 첨단성을 중시하고, 통합적인 초점군수체계(focused logistics)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미래전 양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갖게 될 것으

---

나 등을 통해 깊숙한 벙커 안으로 파고들어가 적의 컴퓨터와 전자장비등의 메모리 칩과 컴퓨터 본체 등을 파괴하거나 오작동을 유발한다. 직경 2km이내의 전자부품 파괴, 10km이내 마비의 효과가 있다. 투발수단으로 크루즈 미사일 등의 탄두에 장착한 것이 있다. 전쟁 승리의 관건으로 원거리 투사능력과 정밀타격 그리고 정확한 정보체계에 의한 전략해군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한용섭 외(2003), pp.1-18 참조.

25) 한용섭 외(2003), pp.1-18.

26) 한용섭 외(2003), pp.1-18.

로 판단된다.<sup>27)</sup> 첫째, 미래전은 고도의 전자정보전으로 적의 전쟁수행체계를 전략적으로 교란하고 마비시킨 후 함대지 유도미사일, 첨단 항모탑재 항공기와 항공우주력을 이용하여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중심 및 지상군 전투력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적의 전쟁 수행능력 및 의지를 말살시켜 전쟁을 승리로 종식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 코소보사태에서 9. 11테러를 거쳐 이라크전은 “인터넷 웹 전쟁,” “사이버 여론전” 등 신조어를 생성하면서 21세기형 전자정보전의 형태를 보여 주었다. 특히 미래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스텔스기, 이지스함, 정밀 장거리 유도미사일, GPS 등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통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미래전은 기동전 능력에 따라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미래전은 기동력과 정찰력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원거리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C4I 체계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첨단 무기체계에 의한 신속기동전의 전개와 미사일 및 장거리 공격무기를 이용하여 적의 C4I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다. 기동전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휘통제체계를 갖춘 적과 교전시 계획되지 않은 어느 정도의 위협은 감수해야 한다. 기동전의 주요 목적은 전쟁에서 세력우위, 기동성과 취약점에 대한 선제공격 등을 통해 적의 병력과 시설보다는 이기려는 적의 의지와 적의 집중을 파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장거리에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체계의 존재 유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미래전은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정치적,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전 및 선택적 국지전 형태의 전쟁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초정밀유도무기, 항공우주무기체계, 미사일 등 제한된 전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보력과 파괴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또한 장기간의 대치보다는 선택적 시간 안에 선택목표에 대한 파괴력 집중의 단기전이 예상되기에 전역에서 꾸준한 감시체계의 운용도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군수물자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래전은 땅과 바다, 하늘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세계인 가상공간까지 포괄하는 5차원의 입체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통합적인군수지원체계(integrated logistics support system)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통합군수지원의 특징은 용병술 체계에 부합하는 군수지원체제, 군수 지휘체대와 지원체대의 역할이 구분된 군수지원체제, 군수관리정보체계와 연계된 군수지원체제, 군수 기능·병과·무기체계별 특성이 반영된 군수지원체제, 사용자(부

27) 장승학,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 해군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pp.48-51 및 길병욱, “국가안보와 한국군의 발전방향,” 『해양전략』, 제125호(2004), pp.1-38.

대) 중심의 군수지원체제 등이다.<sup>28)</sup> 다양한 전장에서 신속, 정확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의 연합 작전형태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즉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민·관·군 국가자원의 통합적 활용과 동원 그리고 전·평시 국가자원의 전력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미래 해양전의 양상은 장소 및 전력의 운용측면에서 국지제한전, 첨단기술전, 우주정보전, 미사일전 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치 및 경영관리적인 측면(governance aspects)에서 정보, 지휘통제, 침투성 및 정밀성 등 4가지 핵심적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융합할 수 있는 효과기반(effects-based) 시스템 복합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sup>29)</sup> 따라서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방향은 무기체계, 인력, 장비, 기지 등 기반전력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요소(hardware), 교리전략, 작전술, 전술, 지휘구조/부대편성, 교육훈련, 제도발전 등 운용적 요소(software), 각 군의 사기, 기강, 인간적·정서적·환경적 요소를 총망라한 정신적 요소(heartware)를 통해 이루어진다.<sup>30)</sup> 여기서 통합적인 거버넌스 네트워킹의 능력은 물리적, 운용적, 정신적 요소와 더불어 정책환경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적 요소(policyware)를 포괄한다.

### Ⅲ. 한국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의 기초

#### 1. 한국의 국방목표

일찍이 세계 4대성인 중의 한 사람인 중국의 공자(孔子, BC 551~479)는 정치의 목표, 즉 나라를 다스리는 3가지 요체(要諦)로 민신·족식·족병(民信·足食·足兵)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현대적 개념의 국가안보와 국력의 3대요소인 정치·경제·군사와 일맥상통한다. 즉 백성에게 믿음을 주고, 백성을 배부르게 해주며, 나라를 지킬 튼튼한 군사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정치력·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이 3위일체로 잘 갖추어져야 주권국가로서 독립과 안전을 지키고,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sup>31)</sup>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인류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국가안보 목표는 국가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당면한 안보환경과

28) 김광열, "최신기법을 통한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방안," 미래군수지원체제·군수발전세미나 논문집 (2010), pp.51-65.

29) 길병욱, "한반도 평화변영정책과 국가안보,"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동학술세미나 논문집 (2004), pp.1-25.

30) 김희상, 『21세기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가안보』 (서울: 도서출판 전광, 2003), pp.41-74.

31) 이선호, "문민정부의 안보불감증 신드롬,"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1994년 여름호, p.20.

가용한 국력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이다. 정부는 국가안보 목표를 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② 국민안전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구축, ③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를 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기조를 ①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② 실용적 외교 및 능동적 개방 추진, ③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추구 등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sup>32)</sup>

우리의 국가목표는 헌법의 전문과 종전에 발간된 『국방백서』의 서두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영구적 독립을 보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복지사회를 실천하며,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sup>33)</sup>

한국의 군사정책과 관련된 헌법조항인 제5조는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군사정책이 방위와 국가안보의 견지에서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1항은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4)</sup>

한 국가의 국방정책은 그 기본근거가 되는 국방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2010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목표는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①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②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③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목표는 국가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반 군사활동을 통해 제거하고 예방함으로써 국가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군사적 차원의 목표이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의 국방목표는 1972년에 제정된 이래 1981년과 1994년 두 차례 개정된 것이다. 현재의 국방목표는 종래의 국방목표였던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를 지난 1994년 3월 10일 개정된 것이다.<sup>35)</sup>

국방정책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

32)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p.32-33;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 2009.1.19, pp.34-35.

33)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1995.10.1, p.17;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8』, 1998.10.1 p.51.

34) 김강녕, “국군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평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제49호, 2003.8, p.105.

35)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 1994.10.1, p.20.

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미래 잠재적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

둘째는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룩하여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함을 의미한다. 셋째는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국력과 국방역량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국제평화유지활동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6)</sup>

## 2. 한국의 국방정책의 기초

1988년 『국방백서』가 발간된 이래 여기에 명시된 한국의 국방정책의 기초 및 기본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전두환 정부 시기는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① 방위태세 완비, ② 적정수준의 군사력 건설, ③ 정신전력 강화, ④ 국방관리의 효율화, ⑤ 예비전력의 정비강화 및 동원태세 확립, ⑥ 군사협력체제의 강화, ⑦ 정부시책 적극추진 등에 두어졌고,<sup>37)</sup> 노태우 정부의 시기도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① 대북 군사대응태세 강화, ② 안보협력체제 발전, ③ 자주국방태세의 정비, ④ 총력방위태세의 강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sup>38)</sup> 그리고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는 ①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 ② 대내·외 군사관계발전, ③ 미래지향적 국방력 정비, ④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등이었고,<sup>39)</sup>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기는 ① 선진정예국방 달성, ② 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 추진, ③ 한·미동맹관계 발전 및 대주변국 안보협력 강화, ④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 등이었으며,<sup>40)</sup>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는 ① 확고한 국방태세의 확립, ② 협력적 자주국방, ③ 일관된 국방개혁, ④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sup>41)</sup>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건군 60주년이 되는 2008년을 '선진화의 원년', '선진강군의 원년'으로 선포함으로써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육성'은 우리 국방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이자 국방비전으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국가안보 목표와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정예화된 선진강

36) 대한민국 국방부(2009.1.19), pp.36-37.

37)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88』, 1988.12; 차영구·황병무 편저,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서울: 오름, 2002), p.93.

38)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0』, 1990.11, pp.27-35.

39)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1997.10.1, pp.65-69.

40) 대한민국 국방부(1998.10.1), pp.52-57.

41) 대한민국 국방부, 『2004 국방백서』, 2005.1.26, pp.49-51.

군'을 국방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방목표와 이러한 국방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8대 국방정책 기조를 제시하여 이를 추진해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8년 3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시한 업무보고를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국방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국방정책기조를 제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42)</sup>

즉 ①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②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③ 선진 방위역량 강화, ④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⑤ 제자리에서 제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육성, ⑥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⑦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⑧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등이 바로 그것이다.<sup>43)</sup>

첫째는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이다.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완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북한의 위협은 물론 모든 스펙트럼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 태세를 확립하여 포괄안보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전승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킨다. 또한 장병 정신교육을 강조하여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과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강한 전사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미동맹의 창조적 발전이다. 한국과 미국은 전쟁을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할 전우로 인식하고, 공통의 가치와 신뢰, 그리고 동맹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군사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의 범위를 확대·심화시키고,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며 한미 간에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시킨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새로운 군사동맹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sup>44)</sup>

셋째는 선진 방위역량 강화이다. 국방부는 남북대치상황을 넘어 통일 이후까지를 지향하는 군의 미래모습을 재조형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하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안보상황의 변화와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발전적으로 보완한다. 군 구조는 합동성·통합성이 강조되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으로 발전시킨다. 전력구조는 첨단전력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한다. 예비전력은 동원체제와 예비군 훈련의 개선을 통해 상비전력수준으로 정예화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적 군사관계를 증진하고 군사외교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며 국제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42) 김가영,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8대 정책기조로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 『국방일보』, 2008년 3월 13일자, 2면.

43) 대한민국 국방부(2009.1.19), p.37.

44) 대한민국 국방부(2009.1.19), pp.63-75.

〈동북아연구〉

넷째는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이다. 국방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군삿거 보장조치를 적시에 강조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의제 및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정부는 상생과 호혜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국군포로문제는 국가적 책무를 이행한다는 인식하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북협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제자리에서 제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 육성이다. 국방부는 군에 내재되어 있는 과시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여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인력구조 및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집약형 군대에 필요하고 미래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교육훈련 분야는 정보화·과학화된 체계로 발전시켜 미래전수행에 적합한 정예화된 장비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이다. 국방부는 군복을 입은 군인은 오직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관리분야의 중앙집권적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조직과 경영의 효율화 달성은 물론, 방위산업과 국방예산의 국가경제에 대한 순기능적 요소를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자원관리체계는 군수자원의 운용과 관리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킨다. 비전투관리분야는 조직과 인력을 통합·슬림화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민간분야를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방위산업 분야는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방위산업체 육성기반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된 국가정보통신역량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선진국방정보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일곱째는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이다. 국방부는 통·폐합 및 재배치를 통해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병영환경을 선진군대 수준으로 점차 개선하며, 직업군인의 헌신적 삶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병영환경과 복지수준을 선진화하여 장병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군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의무지원체계는 장병 건강 증진을 위해 전투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또한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군인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여덟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이다. 국방부는 군이 본영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함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정부시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복입은 국민상(Citizen in

Uniform)’을 정립한다. 이를 위해 장병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기가 고양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조성한다. 재해·재난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 제반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특히 재해·재난 발생시에는 군사작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민지원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한다. 병역·병무제도는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책무 차원에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고 이를 선양한다는 것이다.<sup>45)</sup>

선진정예강군은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 꾸준히 강조되어 온 우리 국방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話頭)이다. 이미 발간된 『국방백서』를 보면, 여기저기서 선진정예국방 또는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강조해온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선진국민군대 육성’(『국방백서』, 1990), ‘정예정보화군 육성’(『국방백서』, 1991~92), ‘정예군사력 정비’(『국방백서』, 1992~93), ‘상비병력 정예화’(『국방백서』, 1993~94), ‘미래지향적 국방력 정비: 선진정예국방·국방인력정예화’(『국방백서』, 1996~97), ‘선진정예국방 달성’(『국방백서』, 1998~99), ‘선진정예국방 건설’(『국방백서』, 1999~2002),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정예군사력 육성’(『참여정부의 국방백서』, 2003), ‘선진정예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국방백서』, 2006)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의 필요성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나오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46)</sup>

## IV.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 1. 8대 국방정책기조에 따른 과제

국방정책은 과거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반영하고 전통의 발전적 계승을 도모하면서 향후 전개될 여건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획된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판단에 따라 정책목표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방정책 발전의 관건은 미래기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장기적으로 미래 안보 환경의 변화와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군구조 및 군사력 개선, 한미군사 협력관계의 발전, 국방자원관리, 군비통제, 인사·복지, 병무정책 등 21세기의 생존·번영·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sup>47)</sup>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국방목표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여 달

45) 대한민국 국방부(2009.1.19), pp.37-41.

46) 김강녕,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 『월간 군사저널』, 2008년 5월호, p.99.

47)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 1991.10, p.32.

성해야 할 군의 모습이며, 이는 국방의 모든 조직과 체계, 수단과 방법, 제도와 절차를 포함한다. 국방부는 이미 『1998-2002 국방정책』을 통해, 우리 군이 설정한 장기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즉 ① 선진국방능력을 구비한 소수정예의 상비군, ② 첨단무기로 무장된 정보·과학군, ③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중기목표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즉 ① 사기충천하고 기강이 확립된 강력한 정예국군, ② 자긍심 넘치고 사명감 투철한 전문직업군, ③ 경영혁신과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군대, ④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를 『2010 국방백서』와 『2008 국방백서』에 제시된 것에 바탕을 두어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의 확립이다. 현대의 국가안보는 군사적 전략 측면외에도 비군사적 요소도 추가로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로 압축될 수 있다. 우리군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완전작전을 수행토록 준비하고 북한의 위협은 물론 모든 스펙트럼의 위협은 물론 모든 스펙트럼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태세를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 정책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향후 우리군은 군구조를 기술집약형 구조로 개편하고 전력을 첨단화합은 물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간 위에서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군사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테러·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도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부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의 가용한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 강화기반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장병은 유사시 생명을 담보로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평소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대적관) 및 필승의 군인정신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안보상황에 부합된 장병 정신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sup>48)</sup>

둘째는 한미 창조적·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이다. 한국과 미국은 6·25전쟁 등을 함께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할 전우로서 한미 공통의 가치·이익 및 동맹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관은 '포괄적 전략동맹론'이며 미국의 관점도 우리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동맹관은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라는 제한된 범위에 한정하지 말고, 동맹의 성격도 중일간의 패권경쟁을 제어하는 19세기적 위협에 대처해 나감은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21세기형 새로운 포괄안보 위협 등과 관련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49)</sup>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12년 4월 17일 전환하기로 합의했

48) 대한민국 국방부(2009.1.19), pp.44-61.

49)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현안 및 전망,"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통권 제57호, 2009년 봄호, pp.21-22.

다가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연합방위체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주한미군재배치사업, 적정수준의 방위비분담, 정책협의를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선진군사역량의 구축이다. 우리 군은 지난 60여년간 현존위협에 대비한 임시방편식 보완개념에서 벗어나 남북대치 상황을 넘어 통일 후까지를 지향하는 군의 미래 모습을 재조형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하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과제를 안고 있다. 선진 방위역량의 구비·강화를 위해서는 21세기형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은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구조 발전과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 발전에 근간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구조는 지휘구조·부대구조·병력구조를 구분하여 합동성 강화와 전투부대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 각군은 미래전장에 부합한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고, 북한의 군사위협과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정예군사력 건설을 위해 조기경보 및 실시간 감시능력을 구비하고 네트워크중심전(NCW) 수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며 기동·타격 전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상비전력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국방외교 지평의 확대,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국제 평화유지활동 등과 같은 노력도 선진 방위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과업이라 할 수 있다.<sup>50)</sup>

넷째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군사적 대비이다. 즉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평화체제구축은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이다.<sup>51)</sup> 우리 군은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군사적 보장조치를 적시적으로 강구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창의적 의제 및 전략의 개발·시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한반도에 실질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남북간 긴장완화와 상호신뢰를 위해 노력해나갈 때 국방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과 무력충돌의 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간 군비통제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전문화된 군대의 육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의 발전,

50)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p.106-131; 대한민국 국방부(2009.1.19), pp.79-114.

51) 하정열,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서울: 박영사, 2004), p.168.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의 주체인 국방인력의 역량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을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로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군 인사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하고 또한 국방인력 구조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인력과 여성인력의 확대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병 개인과 부대가 유사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여 전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전문지식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또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적과 싸우면 이기는 '강한 전사,' '강한 부대'를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이다.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국방자원관리의 선진화, 국방부문의 국가 경제성장 동력화,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정보화 추진 등이 요구된다. 무기체계가 고도로 정밀해지고 다양화해짐에 따라 운영유지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원관리와 관련된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국방자원관리분야의 발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수통합정보체계와 군수지원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수지원의 효율성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물론 비전투 관리분야의 민간위탁과 군 책임운영기관을 확대하여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안보위협 분석에 따라 소요되는 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 군사비를 확보하고, 이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집행하여 국방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비는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바,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 등을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미래전 양상에 대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정보환경 조성이 요구되는바, 국방부는 국가정책과 연계한 국방정보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군사력의 질적 변환을 도모하고 정보공유·정보보호·정보통신 기반을 강화·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는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이다.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군 복지증진 기반구축, 장병 처우 및 생활여건 개선, 군 의무지원체계의 선진화, 전역 군인 취업지원 강화, 군인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장병들의 군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진형 군 복지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고, 군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제도, 급양향상 등과 함께 병영시설 및 공간부들의 주거여건의 지속적 개선과 군인가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병의 건강을 증진하여 전투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군의무지원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역군인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군인의 직업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보상적 성격이 강한 군인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52)</sup>

여덟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육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병영문화 창출,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활동, 전투력 증강과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 국가책무로서의 희생장병 보상 및 예우, 국민에 다가가는 국방정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엄정한 군율 하에 병영문화를 선진화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규제 완화, 환경 친화적인 군 운영, 적극적인 대민지원활동,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 등을 추진해 나가며, 그리고 군전투력 증강과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의 제고를 위한 병역제도의 다양한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책무로서의 희생장병 보상 및 예우, 전사자 유해발굴,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 강화가 요구된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방정책을 적극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주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홍보를 활성화 해나가며 국방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을 적극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53)</sup>

## 2.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위한 국방정책의 과제

강한 군대란 어떠한 군대인가?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은 하나는 강한 전투력을 갖춘 군대이다. '전투력 = 무기 · 장비 · 물자 × 싸울 수 있는 능력 × 싸우려는 의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수한 무기체계를 갖춘 작지만 효율적인 군대, 조국 수호의 소명의식으로 전투의지가 충만한 잘 훈련된 군대,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와 투철한 윤리의식과 도덕적인 수준을 갖춰 국민들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일 것이다. 이러한 군대야말로 평시에는 평화를 수호하고 위기에 즈음해서는 승리할 수 있는 정예강군인 것이다.<sup>54)</sup>

우리 국군은 1948년 창군 이래 국가안보에 대한 크고 작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전해왔다. 평시에는 평화를 수호하고 위기시에는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강군으로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아직 우리 스스로 질적으로는 일본 자위대에 비해 뒤지며, 양적으로는 북한군에 비해 약한 것이 현실이다.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며, 보다 정밀한 첨단정보과학군'이 절실한 요즈음 우리 군의 키워드(key word)는 '작지만 빠르고 강한 군대', 즉 '선진화된 정예강군'(精銳強軍) 육성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05년 9월 발표한 「국방개혁 2020」도 '작지만 빠르고 강한 군대'를 목표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의 국군을 선진정예강군으로 육성하

52) 대한민국 국방부(2009.1.19), pp.

53) 대한민국 국방부(2010.12.31), pp.211-239; 대한민국 국방부(2009.1.19), pp.244-248.

54) 하정열,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인가: 신뢰로 크는 국민의 군대,"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2007년 8월호, pp.12-13.

기 위한 전략을 집약해놓은 것이다. 우리 군이 그동안 추진하고자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정보·지식중심의 첨단정보과학군이다. 현대전 및 미래전은 첨단무기의 보유여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과학기술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보다 멀리 보고, 보다 빠르게 기동하며, 보다 정밀하게 타격하는 군대를 육성하는 일이다.

둘째는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군이다. 효율적인 국방력 건설 및 운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비용·고효율의 자원절약형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병력집약형 전력구조에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선진국방의 기틀을 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선진한국의 위상에 부합되는 선진국방이다. 문민중심의 국방정책결정 및 집행을 보장하고 국방운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급변하는 안보정세와 첨단무기체계 발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방인력을 확보 관리하는 것은 전투력 발휘에 핵심요소이다.<sup>55)</sup>

넷째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이다. 아무리 첨단무기와 장비로 무장된 군대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신뢰 속에 임무에 전념하는 군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sup>56)</sup>

2005년 9월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의 핵심내용은 ① 병력감축: 향후 15년 내(2020년까지) 병력을 68만에서 50만명으로 감축(18만명 일방적 감축) 및 예비군 304만을 150만명으로 감축(154만 감축), ② 군 구조조정 및 통합: 1군사령부·3군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 4개 군단 감축(현재 10개 군단→6개 군단): 27개 사단 감축(현재 47개사단→20개 사단), 2군사령부→후방작전사령부, ③ 첨단·정예화: 병력위주의 군사력→정예군사장비 위주, ④ 장병징모제 변화: 현재의 육군(징병제), 해군 및 공군(모병제)→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형, ⑤ 해군·공군 증강 및 균형적인 역무분담, ⑥ 예비군 훈련기간: 현 8년→5년 등이며, 이러한 개혁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89조원이라는 내용이다.<sup>57)</sup>

하지만 2005년 9월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즉 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데 남한이 일방적으로 18만명이나 병력감축을 단행하겠다는 점, ② 국방개혁의 핵심내용은 첨단·정예화인데 한미동맹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첨단·정예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55) 대한민국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12.29, p.119.

56) 국방부, "개혁과제," 『국방개혁 2020』, <http://www.mnd.go.kr/> (검색일: 2008.4.17).

57) 송대성, "차기 정부의 안보현안과제," 『차기 정부의 국정현안과제: 외교·통일·안보분야』(제16차 세종연구소 국가전략포럼, 2007.6.12,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pp.46.

③ 남북한간 안보현실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감축으로 인해 허상적 평화체제 구축 및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 조성, ④ 289조원보다 훨씬 더 필요한 예산 등이 바로 그것이다.<sup>58)</sup>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기존 '국방개혁 2020'의 전면적인 보완작업이 거쳐졌고, 연평도 포격 사태로 군 전력 강화 등 개혁과제들이 구체화되었다. 2011년 3월 8일, 국방부가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확정·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이 바로 그것이다.<sup>59)</sup> 요컨대 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개편하고 실용적 선진국방운영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군은 가용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위협에 우선 대비하면서 전면전과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선진군사역량을 건설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능력과 실시간 감시능력을 구비하고,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이 가능한 C4I체계를 구축하며, 기동·타격전력체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안보를 중시하고 강군을 육성한 나라는 크게 번영을 구가하고 국가의 생명력을 유지했으나 안보와 국방을 소홀히 한 나라는 국민들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국가 자체가 소멸되기도 했다. 우리 민족도 강군을 가졌던 고구려 시대에는 요동지역과 만주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국가의 위세를 떨치기도 했으나 군세가 약해 군사대비태세를 소홀히 했던 시기에는 국민들에게 치욕과 망국의 설움까지 겪게 했던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위협이 존속하는 한, 대북군사태세는 조금도 늦출 수 없는 당면과업이다. 그러나 방위력 개선을 포함한 국방발전은 근시안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극복해야 할 미래전 및 불확실한 안보위협은 북한 위협보다 더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미래의 전쟁양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첨단과학기술군대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군이 세계적인 국방개혁 및 군사혁신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외안보의존도와 군사종속도가 가중될 것임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체제에서 점차 자위적 전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충분성 전력'기반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방위·기획·작전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과 C4I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성에 기반을 둔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NCOE) 아래 효과중심의 동시통합작

58) 송대성(2007.6.12), pp.46-47.

59) 이종호, 『군사혁신의 전략적 성공요인으로 본 국방혁신의 방향: 주요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국방개혁』,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8, pp.157-159.

전이 가능토록 하며,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60)</sup>

나아가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구현과 관련해서, 점증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PKO)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해외파병상설부대를 편성하여 대기대세를 유지하는 등 유엔 상비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법과제도 및 조직도 전향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V. 결 론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를 위요(圍繞)한 안보·통일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new challenges and chances)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세계 안보정세를 전망해 본다면 세계 각지에서 민족, 역사, 종교, 영토, 자원, 환경문제 등의 복합적인 갈등요인에 의한 국지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테러리즘, 마약, 무기거래 등의 국제범죄, 컴퓨터 범죄, 불법이민, 해적행위, 재해·재난 등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으로 안보상의 불확실성도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동북아 정세도 역내 국가간 경제교류는 증대되는 반면, 한반도문제, 양안문제, 역사적 적대감, 배타적 민족주의, 자원 및 영토분쟁, 통상마찰 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상존할 것이다. 역내국가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과 군사력 증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역내 안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적 경제력과 미일안보체제를 기반으로 역내 정치적·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면서 첨단군사력을 구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공군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장비의 현대화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군사력을 건설하면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방정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논어』(論語)의 구절이 떠오른다. "사람이 먼 앞날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코앞에 근심이 닥치기 마련이다(人無遠慮 必有近憂)."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역사는 시대를 멀리 앞서서 조망하고 이를 철저히 대비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미래는 준비한 자의 몫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공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창군 이래 특히 6·25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군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우리 군은 창설 후 반세기가 넘도록 발전의 뒤 안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국가와 사회발전, 나아가 국제평화에도 기여하며 양과 질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여 막강한 국

60) 하정열(2007.8), pp.12-13.

군으로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변함없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의 군비태세의 발전과 함께 확고한 한미안보협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군의 대외군사교류 및 협력노력도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안정 유지에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아직도 ‘선군정치’, ‘총대사상’을 부르짖으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각에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 군과 북한군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보현실이다.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기도와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우리의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국군에게 부여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확고한 대적관 확립과 군사대비태세 만전이라는 기본임무의 양대 축이 완벽하고 굳건할 때만이 궁극적으로 화해·협력을 비롯한 평화통일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sup>61)</sup>

군사혁신의 세계적 추세와 자국에 적합한 국방개혁의 추진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21세기 안보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군사혁신에 근거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미래의 지·해·공 각 군은 통합전력의 한 축으로서 합동성·통합성·동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 및 감시·정찰(C4ISR)체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중심작전(NCW), 효과중심작전(EBO), 정밀유도 미사일(PGM) 작전에 적합한 기동부대 중심의 전력구조로 발전해 나가야 것이다.<sup>62)</sup>

이제 우리군은 선진정예강군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며 재도약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직한 선진강군의 위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호’의 새로운 선진화 및 선진정예강군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①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한 강군, ② 세계·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군, ③ 우방국과 공고화한 동맹 유지, ④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강한 친구, ④ 미래의 비전을 준비하는 변화하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sup>63)</sup>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If you wish peace, prepare for war. -Vegetius)는 격언이 있다. 진정한 평화는 강한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튼튼한 국방력은 바로 평화

61) 국방부 정신전력기획관실, “제24주차 기본정훈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제15과),” 『국방일보』, 2008년 6월 5일자.

62) 국방부 정훈기획관실, “제10주차 기본정훈: 우리가 만들어가는 국군의 역사,” 『국방일보』, 2008년 2월 28일자, 9면.

63) 김강녕, 『한반도 평화론』 (경주: 신지서원, 2009.2), pp.514-516.

<동북아연구>

의 기본 전제조건이다. 국가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국가간의 갈등이 존속되는 한,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화두(話頭)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진석,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서울: 평단, 2005).
- 공군전투발전단, 「이라크 전쟁」 (계룡: 공군본부, 2003).
- 국방부 정훈공보관실, “국가안보와 군의 역할,” 『국방일보』, 2002년 3월 29일자.
- 길병욱, “한반도 평화변영정책과 국가안보,”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동 학술세미나 논문집, 2004.
- 길병욱, “국가안보와 한국군의 발전방향,” 『해양전략』, 제125호, 2004.
- 김가영,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8대 정책기조로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 『국방일보』, 2008년 3월 13일자.
- 김강녕, 『한반도 평화론』 (경주: 신지서원, 2009.2).
- 김강녕,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 『월간 군사저널』, 2008년 5월호.
- 김강녕, 『동북아 평화안보론』 (부산: 신지서원, 2003.8).
- 김강녕, “국군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평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제49호, 2003.8.
- 김광열, “최신기법을 통한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방안,” 미래군수지원체제·군수발전세미나 논문집, 2010.
- 김희상, 『21세기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가안보』 (서울: 도서출판 전광, 2003).
-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12.31.
-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 2009.1.19.
- 대한민국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12.29.
- 대한민국 국방부, 『2004 국방백서』, 2005.1.26.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8』, 1998.10.1.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7-1998』, 1997.10.1.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1995.10.1.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 1994.10.1.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1-1992』, 1991.10.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0』, 1990.11.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88』, 1988.12.
- 류재갑, “미래전쟁의 양상변화와 해병대의 새로운 역할,” 『전략논단』, 통권 제6호(2007).
- 박준홍,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서울: 박영사, 1978).
- 박호섭, “해양전략의 현대적 개념과 과제,” 해군대학 해양전략 심포지엄 논문집, 2004.
- 박헌욱, “이라크 전쟁 양상 분석,” 21세기군사연구소, 『군사세계』, 2001년 5월호.
- 백종천, “한국의 국방개혁: 주변 4강과의 비교시각에서,” 이대우 편, 『한국 대외정책의 평가 및 발전

- 방향』, 서울: 세종연구소, 2000.
- 백진현,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 협력의 과제와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8집 3호, 1999.
- 서현석, “해양전략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해양전략연구소 편, 『동북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우리군의 발전방향』, 2001.
- 송대성, “차기 정부의 안보현안과제,” 『차기 정부의 국정현안과제: 외교·통일·안보분야』(제16차 세종연구소 국가전략포럼, 2007.6.12,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오수열, 『미중시대와 한반도』(부산: 신지서원, 2002).
- 이규형 감역,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 저, 『전쟁과 반전쟁』(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현안 및 전망,”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통권 제57호, 2009년 봄호.
- 이선호, “문민정부의 안보불감증 신드롬,”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1994년 여름호.
- 이종호, 『군사혁신의 전략적 성공요인으로 본 국방혁신의 방향: 주요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국방개혁』,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8.
- 장승학,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 해군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차영구·황병무 편저,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서울: 오름, 2002).
- 하정열,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인가: 신뢰로 크는 국민의 군대,”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2007년 8월호.
- 하정열,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서울: 박영사, 2004).
- 한용섭 외, “이라크 전쟁의 평가를 통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책,”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정책연구과제 자료집』, 2003.
- Fromm, Erich, The Sane Society(New York: Rinehart & Company, Inc., 1955).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9(London: IISS, 2009).
- Kil, Byung-ok, Security Policy Dynamics, London: Ashgate, 2001.
- Stevens, Henry Bailey, The Recovery of Culture(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9).
- 국방부, “개혁과제,” 『국방개혁 2020』, <http://www.mnd.go.kr/>(검색일: 2008.4.17).
- 이춘근, “세계 전쟁의 유형과 그 특징,” 1994.6  
[http://blog.naver.com/ghkwlsj?Redirect=Log&logNo=90\\_087425482](http://blog.naver.com/ghkwlsj?Redirect=Log&logNo=90_087425482)(검색일: 2010.11.22).  
[http://www.mnd.go.kr/sub\\_menu/W-book/1-1-1.htm](http://www.mnd.go.kr/sub_menu/W-book/1-1-1.htm)(검색일: 2002.10.18).
- 『중앙일보』, 2004년 9월 15일, 1면. 「중앙일보」, 2004년 8월 30일자, 1면.

## The Changes of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ROK's National Defence Policy Tasks

Kim, Kang-Nyeong

This paper aimed to analyse the changes of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tasks of national defence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searched for the changes of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future warfare in general, the objectives and tenets of the national defence policy, the ROK's national defence policy tasks, and concluded.

Within Northeast Asia, mutual exchang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have been increasing. Yet the causes for disputes and the maritime demarcation issue, still exist leading concerned nations to compete against one another in bolstering their military power, which destabilizes the region. Despite the sanctions levi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economic hardships, North Korea has put its utmost effort into constructing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by the year 2012.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the world's fourth largest conventional military force and that it has developed WMDs, including nuclear weapons, poses a serious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strives to reform national defense by building slim but strong advanced ROK military forces capable of meeting the challenges posed by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and future warfare in general. The basic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military reform is to change the military structure and develop a pragmatic, advanced defense operational system to counter various security threats posed at home and abroad.

Our military should do its best to build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capable of ensuring deterrence and victory incases of an all-out war as well as coping with the threat of local provocations by North Korea by making systems, the C4I system, which enables network-centric warfare, and a mobile strike capability will be obtained.

Key Words :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 ROK's National Defence Policy,  
National Defence Reform, Future Warfar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투고일 : 2011.6.28 / 심사일 : 2011.7.10 / 심사완료일 : 2011.8.28